

폴란드 사무소/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(8월 1주~8월 2주)

□ 정책 및 시장 동향

① 폴란드 경제 동향

○ 폴란드, 2025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(7.31)

- 폴란드 통계청(GUS)은 2025년 7월 폴란드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.1%로, 6월 4.1%에서 크게 하락했다고 발표
- 투스크 총리는 인플레이션 둔화를 환영하며, 이전 우파 정권에서 나타난 고물가 문제를 해소했다고 언급
- 도만스키 재무장관은 6월 기준 임금이 전년 대비 9% 상승해 국민의 구매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힘
- 정부는 2026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평균 3% 수준으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
- 중앙은행은 2025년 인플레이션을 3.9%, 2026년 3.1%, 2027년 2.4%로 전망하며, 물가 안정과 구매력 회복을 주요 경제 성과로 강조

○ 폴란드, 2024년 무역수지 5억 유로 흑자 기록(GUS, 7.30)

- 폴란드 통계청은 2024년 수출액 3,530억 유로, 수입액이 3,525억 유로로 약 5억 유로 무역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
- 수출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유지, 수입은 2.7% 증가함
- 주요 수출 대상국은 독일, 체코, 프랑스, 주요 수입국은 독일, 중국, 미국 순임
- 2023년에는 약 98억 유로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, 2022년에는 198억 유로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음
-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23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, 흑자 기조는 유지

○ 폴란드 외국인 주택담보대출 급증, 전체 대출의 8% 차지(7.30)

- 2025년 6월 말 기준, 26.5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폴란드 은행에

약 257억 즈워티(약 60억 유로) 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며, 이 중 80%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임

- 외국인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82%, 현금대출 14%, 신용카드 및 할부 등 기타 대출 4%를 차지
- 외국인 대상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23년 34.3억 즈워티(전체 주택담보대출의 7.7%)에서 2024년 57.9억 즈워티(8.3%)로 증가
- 2025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은 36억 즈워티로 집계, 연간 60억 규모가 초과할 것으로 전망
- 대출자는 우크라이나(18.4만명, 136억 즈워티), 벨라루스(2.4만명, 42억 즈워티) 등이 주를 이루며, 인도·러시아·터키·조지아·독일·영국·이탈리아·프랑스 출신도 포함
- 우크라이나 대출자들은 서부 주요 도시에 거주하며, 연체율이 낮고 상환 성실도가 높음
- 비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.5%로 폴란드인보다 양호하나, 현금대출 상환률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

○ 폴란드 수출기업 40%, 우크라이나 전후 진출 의향 있어(8.4)

- 폴란드 경제연구소(PIE) 조사에 따르면, 폴란드 수출기업의 40%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재개 또는 신규 진출을 계획 중
- 진출 의향이 높은 업종은 화학, 기계, 식품 분야
- 실제로 전후 직접투자를 고려 중인 기업은 전체의 6%에 불과
-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에도 우크라이나는 폴란드 기업의 주요 수출시장 유지, 전쟁 중에도 폴란드산 제품 수요는 증가 추세
- 수출기업 중 대기업(종업원 250명 이상)이 42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, 중소기업 비중은 36%
- 수출기업의 76%는 전쟁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는 없다고 응답, 피해기업은 대부분 동부시장 상실, 인플레이션, 물류 차질 등 간접적 영향 보고

② 우크라이나 경제 동향

○ 우크라이나 슈퍼마켓 체인 Varus, EBRD로부터 210억 대출(8.5)

- Varus는 7월에 유럽부흥개발은행(EBRD)으로부터 26.3억(약 211.2 억원)의 첫 대출 분할금 수령, 전체 210억 중 잔여 대출금은 연말 까지 수령 예정
- 대출 자금은 Varus 소매망 확장, 사업 회복력 강화, 에너지 효율 기술 도입에 투입되며, 태양광 패널 설치, 조명 업그레이드, 물류 개선 등이 포함됨
- Varus는 2024년 3월 EBRD와 협력 계약을 체결, 이번 금융지원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부문 강화와 식량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
- Varus는 2003년 드니프로에 첫 매장을 열었으며 현재 전국에 115개 매장을 운영 중, 이번 투자로 식품 접근성 향상과 지역 생산자 지원, 물류 인프라 개선이 기대됨

○ 우크라이나, 2027년 전력 수입 완전 중단 전망(8.5)

-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은 2025년 전력 부족률을 1%로 하향 조정, 2026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
- 2027년부터는 전력 수입이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, 에너지 자립 실현 가능성 부각
- 7월 전력 수출은 전월 대비 16% 증가한 28.2만MWh, 몰도바 수출이 41%로 가장 큰 비중
- 슬로바키아 등 일부 국가로의 수출은 감소, 슬로바키아 수출은 24% 줄어듦
- 같은 기간 전력 수입은 24.7% 증가한 25.7만MWh, 헝가리 수입이 41%로 가장 높음
-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지만, 수입 비용이 높은 구조로 전력 무역 수지는 적자 기록

○ 우크라이나 주요 대기업 실적 분석(2024년 기준)

- 연매출 210억 이상 기업 1,253곳의 2024년 총매출은 27.92조에

달하며, 이중 상위 10대 기업이 전체의 35%를 차지

- 상위 10대 기업 중 7개는 국영기업, Energoatom(원자력 발전), Naftogaz(천연가스 공급 및 배분), Ukrnafta(석유생산 및 정제), Ukrzaliznytsia(국영철도), Ukrposhta(국영우편)이 포함됨
- 민간 부문 상위 3개 기업은 전력 거래 기업 D.Trading, 소매업체 ATB-Market, 유통체인 Silpo-Food가 포함

<우크라이나 주요 산업별 연간 매출 규모 및 기업 수(2024)>

1 UAH= 33.6 KRW

매출순위	산업분야	매출액(UAH)	매출액(KRW)	주요 기업 수
1	도매업	₺1.48조	₩49.7조	281
2	소매업	₺9,877억	₩33.2조	126
3	전력 거래	₺7,043억	₩23.7조	48
4	식품 산업	₺6,366억	₩21.4조	153
5	광산업	₺4,998억	₩16.8조	37
6	농업	₺4,997억	₩16.8조	131
7	가스 거래	₺3,749억	₩12.6조	12
8	석유 및 석유제품 유통	₺3,443억	₩11.6조	61
9	철강 및 금속	₺2,673억	₩8.98조	22
10	전력 및 가스 유통	₺2,287억	₩7.68조	27
11	방위산업	₺2,013억	₩6.76조	16
12	운송업	₺1,920억	₩6.45조	16
13	천연가스 생산	₺1,556억	₩5.23조	12
14	화학·제약	₺1,099억	₩3.69조	41
15	석유화학	₺1,048억	₩3.52조	6
16	물류	₺877억	₩2.95조	17
17	통신	₺835억	₩2.80조	8
18	IT	₺775억	₩2.60조	22

○ 우, 유럽 최대급 엔진 부품 공장 '모토르데탈-코노토프' 매각 추진(8.1)

- 우크라이나 국영자산기금(State Property Fund of Ukraine, SPFU)은 수미 지역의 모토르데탈-코노토프 공장 지분 100% 민영화를 위한 경매를 9월 24일에 실시 예정, 시작가는 ₺268백만(약 90.1억원)

- 해당 공장은 유럽 최대 규모의 실린더 라이너 생산 설비 보유, 롤스로이스·스카니아·MAN·메르세데스-벤츠·볼보 등 주요 유럽 자동차 업체에 부품 공급
- 공장은 주조·가공·보조 작업장을 포함, 직원 600여 명 고용 중
- 판매 수익은 러시아의 무력 침공 피해 복구 기금으로 사용 예정, 주거 및 기반시설 복구에 투입
- 2023년 최고 반부패법원의 판결로 러시아 연방위원회 상원의원 세르게이 칼라쉬니코프 소유의 자산을 우크라이나가 몰수, 이 중 하나가 본 공장
- 공장은 자동차뿐 아니라 트랙터, 선박, 디젤 기관차, 고정식 내연 기관용 부품도 생산

○ 오스트리아 법원, Naftogaz에 러 자산 120백만 유로 압류 허가(8.4)

- 오스트리아 법원이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나프트가즈(Naftogaz)에 대해 러시아 자산 120백만 유로 상당을 강제 회수할 수 있도록 판결
- 해당 자산은 러시아가 점유한 크림반도 내 나프트가즈 자산 불법 몰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일환으로, 오스트리아 내 러시아 소유 부동산 20여 건 경매로 회수 예정
- 나프트가즈는 타국에서도 러시아 자산에 대한 법적 회수 절차를 지속
- 앞서 2025년 4월 파리 법원은 크림반도 점령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나프트가즈 손을 들어주는 중재 판결을 내림
- 보상 대상에는 가스 저장시설·가스관 운영권·장비·인프라·광물 탐사권 등과 675백만m³의 지하 저장 가스가 포함되었음

○ Ukrnafta, 2024년 실적 기반 €50억 배당금 납부(8.6)

- 우크라 국영 석유기업 우크르나프타(Ukrnafta)는 2024년 실적에 따라 €50억(약 1,670억원)을 국방부 및 나프트가즈에 배당금으로 납부
- 2024년 순이익은 €163.8억 기록, 2년 연속 원유·가스 생산 및

석유제품 판매 증가세 유지

- 우크라이나프타는 현재 544개 주유소 운영(자체 운영 461개, 위탁 관리 83개)
- 총 92개 유전 개발 면허 보유, 1,832개 원유 및 154개 가스 생산정 운영
- 나프토가스가 지분 50%+1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, 2022년 11월 국방부가 민간 주주 지분을 국유화하며 회사 지배권 확보
- 세르히이 코레츠키 CEO는 시장 점유율 확대와 빠른 성장을 강조, 주유소 부문의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언급

○ 우크라 채탄 기업, 도네츠크 광산 상실 후 폴란드 진출 추진(8.5)

- 우크라계 석탄기업 콜에너지(Coal Energy), 도네츠크 지역 광산 10곳 상실 이후 폴란드·루마니아 폐광 재개발 계획
- 폴란드 자브제(Zabrze) 소재 실텍(Siltech) 광산 인수 검토 중, 해당 광산은 2025년 말 폐쇄 예정
- 폴란드 정부의 2049년 석탄 단계적 폐지 계획에도 불구하고, 우크라 수출용 석탄 수요 대응을 위한 개발 추진
- 약 1,450만 즈워티(약 4.85억원)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전환사채 및 워런트 발행 추진
- 고령토, 인회석, 장석, 황 등 주요 광물 채굴 사업도 검토 진행 예정

③ 폴란드 인프라 및 외교 동향

○ 폴란드, EU SAFE에 국방 프로젝트 자금 450억 유로 신청(7.30)

- 폴 국방장관 코시냐크-카미시는 EU SAFE 프로그램에 약 50억 유로(약 8조 650억원) 규모의 국방자금 대출을 신청했다고 발표

* SAFE(Strategic European Investment Facility for Security) : EU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와 국방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된 대규모 방위 대출 프로그램으로, 러시아의 침공 이후 유럽 내 안보 불안 대응 목적, 최대 1,500억 유로 규모 대출을 2030년까지 제공할 예정

- 해당 자금은 폴란드 동부 지역 방어를 위한 '이스턴 실드

(Eastern Shield)' 등 주요 안보 프로젝트와 폴란드군 핵심 역량에 활용될 예정

- 벨기에, 스페인, 핀란드 등 9개국도 신청 완료, 유럽연합 집행위는 7월 30일 자정을 '우선 검토를 위한 비공식 마감일'로 설정
- SAFE 규정상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가 원칙이나, 도입 첫 해에는 단일 국가 참여도 허용되며, EU 회원국이 아닌 노르웨이, 스위스, 우크라이나도 참여 가능

○ 폴란드, 가을까지 SMR(소형모듈원자로) 로드맵 발표 예정(7.29)

- 에너지부 모티카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로 (Small Modular Reactor, SMR) 도입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9월 말까지 발표하겠다고 언급
- 해당 로드맵은 전력 생산과 지역난방 수요 모두를 포괄하며 국가 에너지 전략에 통합될 계획
- 가장 진척된 프로젝트는 Orlen-Synthos Green Energy(OSGE)로, 국영 정유사 Orlen과 민간 화학기업 Synthos가 50:50으로 공동 출자
- OSGE는 GE-히타치의 BWRX-300 원자로를 폴란드 내 복수 지역(브워츠헤크, 스타비 모노프스키, 오스트로웁카 등)에 구축 계획
- 기후부는 2023년 12월 7일 OSGE의 6기 SMR 건설을 허가했으나, 국가보안국(ABW)이 부정적 의견을 제출, 그 내용은 비공개로 결정
- 2024년 2월 국유재산부는 OSGE의 지분 구조를 재검토하며 감사를 지시, 기후부도 소유구조에 대한 별도 검토 착수
- 2025년 7월 OSGE는 캐나다 온타리오 전력청(OPG)과 협력 의향서 체결, 캐나다 측이 BWRX-300 도입·운영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 제공 예정

○ Orlen-Solowow, 폴란드 SMR 사업 협상 마무리 단계(8.4)

- 국영 정유사 Orlen과 폴란드 재벌 미하우 소워보브(Michal Solowow) 간 소형 원자로(SMR) 건설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음
- 소워보브는 유럽 내 여러 국가에서 SMR 관련 독점 기술 권리를 보유 중이며, 폴란드 내 BWRX-300 원자로 건설사업에 관심

- Orlen은 소위보브 소유의 기업 Synthos Green Energy(SGE)와의 협력 의지를 유지하며, 시장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확인했다고 밝힘
- SGE는 헝가리 Hunatom, 슬로바키아 Slovenske Elektrarne와 협력하며 중유럽 소형 원전 리더십 확보 목표
- 해당 협력은 폴란드 내 기술 도입 가속화와 함께 SMR 관련 부품·서비스 수출 기회도 창출할 전망
- Synthos 그룹은 폴란드·체코·프랑스·네덜란드 등 6개 생산시설 보유, 약 3,000명을 고용하는 화학 원료 제조업체임

○ GA Polyolefins, HEC에 Polimery Police 계약 위약금 청구(8.2)

- Grupa Azoty Polyolefins(GA Polyolefins)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(HEC)이 제기한 청구를 기각, 약 1억 1,200만 유로 규모의 계약상 위약금 지급을 요구
- 양측이 2024년 12월 체결한 '협력 및 안정화 계약'은 2025년 7월 31일부로 종료, 당사자 간 제기된 청구는 조율되지 못한 채 마무리
- HEC는 2023~2024년 사이 계약 기간 연장, 보수 단가 인상, 약 580만 유로 상당의 마일스톤 승인 지연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며 다수의 청구를 제기, GA Polyolefins는 이를 모두 반박함
- HEC는 2019년 5월 11일 체결된 계약에 따라 Polimery Police 석유화학 단지의 설계·시공을 담당, 첨단 공정기술 기반으로 플라스틱 제조 원료가 되는 프로필렌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시설을 건설
- GA Polyolefins는 HEC가 공사 지연과 결함 보수 문제로 주요 마일스톤을 기한 내 달성하지 못했으며, 이에 따라 지급 보류 및 계약상 벌금 청구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설명함
- Polimery Police 프로젝트는 연간 약 43.7만 톤의 폴리프로필렌과 42.9만 톤의 프로필렌 생산을 목표로 건설된 석유화학단지로, 원료 공급을 위한 해양 가스 터미널(Gazoport)도 포함
- Grupa Azoty는 폴란드 최대 화학기업 중 하나로, 폴란드 정부가 주요 주주로 참여, 유럽 내 질소 및 복합비료 생산 2위 업체이며,

멜라민, 폴리아미드 등 다양한 화학제품 시장에서 활동

○ Grupa Azoty, 폴리체 프로젝트 자회사 및 Orlen과 MoU 체결(8.1)

- 2025년 8월 1일, Grupa Azoty와 GA Police, GA Polyolefins, Orlen이 Polimery Police 관련 양해각서 체결
- Orlen이 GA Polyolefins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가능성이 열렸으며, 이는 GA Polyolefins의 재무 안정화 및 Grupa Azoty의 자산 구조 최적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
- Orlen이 주요 인수 후보자로 참여하는 자산 매각 절차가 올해 연말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, 거래 체결은 의무사항은 아님
- 국유자산부 발춘 장관은 "Grupa Azoty 재정 건전성 회복이 주요 과제 중 하나이며, 이번 협약은 중요한 진전"이라고 평가

○ 시코르스키 외무장관, "자유로운 우크라이나는 안전한 폴란드"(8.2)

-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초비엘린 자택에서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비공식 회담 개최, 회담에는 양국 부인 장관 동석
- 시코르스키는 "우크라이나 지지는 정치적 입장을 초월한 국가적 책무"라며, 전쟁 지원·재건·EU 가입 추진까지 폴란드가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재확인
- 양국은 유럽연합 및 미국의 군사 지원, 러시아 및 동조국에 대한 제재 유지 필요성에 공감, 지역 안보·정치·사회적 협력 확대 의지 표명
- 역사 문제와 관련하여 볼히니아 대학살 희생자 유해 발굴 작업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, 우크라이나 내 폴란드계 소수민족의 교육권 보장 협의도 지속 중
- 시코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강력 지지하지만, 우크라이나 내 부패방지기관의 독립성과 실효성 확보 등 개혁 중요성 강조

○ 폴,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48·49차 군사지원 패키지 준비 발표(8.2)

-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8월 1일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차관과 회담, 우크라이나를 위한 제48·49차 군사지원 패키지를

준비 중이라고 발표

- 기존 제47차 지원 패키지 이행을 논의했으며, 새 패키지는 향후 수개월간 우크라이나의 방어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
- 시코르스키 장관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폴란드의 군사 지원 지속 주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점을 환영, 특히 美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지원 재개 결정을 높이 평가
- 7월 초 러시아의 공습으로 키이우 주재 폴 영사관이 피해를 입은 직후, 시코르스키 외무장관이 트럼프 특사에 직접 연락해 공관 공격 사실을 알리고 대공무기 지원과 강력한 대러 제재를 요청
- 영국 텔레그래프는 시코르스키의 이 같은 개입이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공급 재개 결정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보도

○ 폴, 美와 1.15억 달러 규모 공병 전투차량 도입 계약 체결(7.31)

- 7월 31일 폴란드는 美와 기존 무기 계약에 부속 합의(annex)를 체결
- M1150 공격용 공병차량(ABV) 25대를 도입하기로 합의, 계약 금액은 1.15억 달러이며, 차량 인도는 2029년 예정
- ABV는 에이브람스 전차 차체 기반의 장갑 공병 차량으로, 기뢰 제거·장애물 돌파 등 전장 개척 임무에 특화
- 이번 계약은 2023년 1월 체결된 에이브람스 전차 구매 계약의 연장선, 예비 부품·물류지원·훈련 패키지도 포함됨
- 베이다 국방차관은 “폴란드는 유럽을 넘어 글로벌 차원의 강력한 육군 전력을 갖춘 NATO 핵심국이 되고 있다” 고 강조

○ 투스크 총리, “이스라엘 지지하지만 민간인 고통은 지지할 수 없어”(8.3)

- 투스크 총리는 8월 3일 성명을 통해 “폴란드는 이슬람 테러리즘에 맞선 이스라엘의 싸움을 지지하지만, 여성과 아이들이 굶고 죽는 정치적 결정은 지지하지 않는다” 고 언급
- 시코르스키 장관은 언론인터뷰에서 “가자지구 아동을 하마스를 모른다” 며, “이스라엘도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” 고 언급

- 주폴 美대사 내정자 로즈는 "우크라이나가 점령지의 러시아 민간인을 위해 원조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이, 이스라엘에 대한 기대는 비현실적" 이라고 반박
- AP통신은 같은 날 가자지구 구호 식량 배급소 인근에서 최소 23명의 민간인이 폭격에 의해 사망했으며, 수십만 명이 기아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

○ 폴 법원, 심해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관련 환경단체 소송 기각(8.4)

- 바르샤바 행정법원은 슈비노우이시치 심수(深水)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반대한 독일 및 폴란드 환경단체의 소송을 기각
- 재판부는 폴란드 환경보호청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으며, 공청회 등 의견 청취와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
- 향후 최고행정법원의 항소 가능성은 열려있음
-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해양 생태계 영향 등을 우려했으며, 독일과의 국경을 넘는 협의가 진행되었음
- 항만청 측은 7월에 있었던 건설 일시정지 명령에 항소 중이며, 이번 판결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발표
- 본 사업은 인프라부 주관, 슈체친-슈비노우이시 항만청 주도 하에 2029년 완공을 목표, 연간 200만 개 컨테이너 처리 예상
- 총사업비는 터미널 25억 즈워티(약 9,526억원), 관련 해양 인프라 포함 시 약 100억 즈워티(약 3.81조원) 규모
- 400m급 초대형 선박 2척 동시 접안 가능 설계, 17m 수심의 65km 접근 항로 신설 예정, 카타르-벨기에 컨소시엄이 시공 담당

○ EU, 폴란드 철도 효율성 제고 위한 47백만 유로 규모 계획 승인(7.31)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가 제안한 철도 효율성 제고 및 도로에서 철도로의 운송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승인
- 본 계획은 철도 차량에 유럽 공통철도 교통관리 시스템(European Rail Traffic Management System, ERTMS)* 설치를 지원하며, 기술

장벽 제거 및 안전성 · 운영 효율성 향상 목적

* 유럽 공통철도 교통관리시스템(ERTMS) : 유럽 연합(EU)이 추진하는 철도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로, 유럽 각국이 개별적으로 사용하던 열차 제어 및 신호 시스템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목적에서 개발 추진 중

- 지원은 화물 및 여객 철도 운영사, 차량 임대사 등에 직접 보조금 형태로 제공 예정
- 해당 발표는 정부의 도로 중심 교통 정책에 반발하는 철도 노동조합의 시위와 맞물려 나옴
- 철도 노조는 공공 투자 확대, PKP Cargo에 대한 지원 강화, 인프라 접근 비용 인하 및 철도 발전 전략 수립을 요구 중

○ Zielona Góra-Wilkanowo 구간 도로 재건 사업 착수(8.4)

- 폴란드 국가도로청(GDDKiA)은 DK32번 국도 중 젤로나 구라(Zielona Góra) 지역의 파야스트프 술롱스키(Piastów Śląskich) 회전교차로에서 빌카노보(Wilkanowo)까지 약 1.8km 구간에 대한 재건 사업 계약을 체결함
- 본 사업은 기존 노면을 철거하고, 축당 하중 11.5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재시공할 예정
- 도로 노면 보강 외에도 차도 가장자리 확장, 신규 조명 설치, 도로 제방 및 배수로 정비, 회전교차로 내 교통섬 재건이 포함됨
- 젤로나 구라-자리(Zary) 구간의 철도 370호선을 횡단하는 고가도로의 노면 및 신축 이음부 보수 작업도 병행 추진
- 총사업비는 약 670만 즈워티(약 25.5억원)이며, 공사 기간은 동절기 제외하고 11개월 이내 완료될 예정

○ 폴란드 CPK 신공항 개발 본격화, 2032년 개항 목표(8.4)

- 마치에이 라섹 CPK 정부 전권대표는 올해 말까지 바라누프 인근 신공항(CPK)에 대한 건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
- 여객터미널은 2026년 시공 계약 체결 및 기초공사 착공 후, 2031년 공사 완료 및 2032년 개항 목표
- 여객터미널 및 환승센터 설계에는 Foster + Partners, Buro Happold

등 30개 업체가 참여, 총 6,250개 도면과 50개 이상 기술 보고서로 구성

- 공항 및 철도 분기점 부지의 52%(2,000ha 이상)를 확보했으며, 자발적 매입 방식을 통해 우선 개발 가능 부지 중심으로 진행 중
- 고속철도 관련, 우치 구간 4.6km 터널 공사는 오스트리아 건설사 PORR 중심의 컨소시엄이 총 21.7억 즈워티 규모로 수주했으며, 2029년 중반 완공 예정
- 바르샤바-CPK-우치 구간 고속철은 2032년, 포즈난 및 브로츠와프 연결 구간은 2035년 개통 목표
- 공항은 초기 연 340백만 명 수용 규모로 설계되었으며, 향후 수요에 따라 확장 가능, 전체 투자비는 2032년까지 약 1,317억 즈워티로 추산
- 정부는 불가피한 수용 발생 시 공정 보상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 추진, 지역 주민과의 갈등 최소화 위한 지속적 소통 노력 강조

④ 우크라이나 정부외교 및 정책

○ 美 상원, 546억 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 논의중(8.4)

- 미국 상원이 향후 2년간 총 546억 달러 규모의 對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논의 중
- 이 중 약 10억 달러는 승인 완료,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은 동결 러시아 자산 몰수 및 대(對)유럽 무기 판매 수익으로 조달 예정
- 법안은 민주당 잔 샤헨(Jeanne Shaheen) 상원의원과 공화당 리사 머카우스키(Lisa Murkowski) 의원이 공동 발의
- 해당 법안에는 우크라이나에 300억 달러의 안보 지원과,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수물자를 직접 이전할 수 있는 한도를 6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포함
- 이 외에도 미군 무기 재고 보충 및 신규 구매 예산이 포함되었으며, 트럼프 대통령에게 러시아 자산 몰수 개시 및 대체 활용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

○ 美, 러-우 평화협상 위해 양방향 특사 파견(8.5)

- 美 국무부 부대변인 미농 휴스턴은 동맹국인 우크라이나와 협력하여 완전한 휴전을 지지한다고 밝힘
- 휴스턴은 평화 달성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-러시아 간 직접 협상과 이를 토대로 한 휴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
-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측 요청에 따라 스티브 위치코프 특사를 8월 6~7일 중 모스크바에 파견할 수 있다고 발표, 이는 트럼프가 제시한 8월 8일 평화합의 시한 전 이뤄질 예정
- 트럼프는 러시아가 금주 금요일까지 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대러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
- 美 나토 대사 매튜 휘태커는 위치코프 특사의 모스크바 방문이 평화협상에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
- 이와 별도로 키스 켈로그 특사는 조만간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

○ 젤렌스키, 푸틴에 전쟁 종식 위한 직접 대면 회담 제안(8.4)

-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전쟁 종식을 위한 직접 대면 회담 제안, 러시아가 모호한 발표와 기술적 회의 대신 최고위급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
- 푸틴은 2024년 6월 조건(점령지에서 우크라이나 군 철수, NATO 가입의사 철회, 중립국 및 배핵화 선언)에 따른 전쟁 종식 의향을 표명하며, 우크라이나 안보 논의를 포함한 타협 가능성을 밝힘
- 해당 조건들은 러시아의 점령지 정당화 및 우크라이나의 군사·외교적 주권 포기를 전제로 하고 있어, 우크라이나는 수용 불가 조건으로 판단
- 美 국무장관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러시아와 전쟁 종식 논의를 했으나 진전은 없었다고 언급
- 트럼프 대통령은 8월 8일까지 전쟁 종식 합의 체결을 목표로 하며, 그 전에 러시아와 추가 회담 가능성 시사
- 美 특사 스티브 위치코프는 이스라엘 방문 후 러시아로 출국 예정

- 美・NATO, 우크라 군사 지원 위한 신규 메커니즘 PURL 출범(8.4)
 - 美・나토는 미국산 무기・장비의 우크라이나 공급을 신속화하기 위한 PURL(Prioritized Ukraine Requirements List)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
 - 동 메커니즘은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무기 목록을 제출하면 나토가 조달・조정, 미국 및 회원국은 자발적 재정 기여로 무기 구매 지원
 - 첫 지원은 네덜란드가 5억 유로 출자, 패트리엇 방공체계 부품・미사일 등 긴급 물자 포함
 - 덴마크・노르웨이・스웨덴은 총 486백만 달러 상당 추가 기여 예정, 주요 품목은 패트리엇 미사일, 탄약 및 기존 장비 지원 유지용 물자
 - PURL은 젤렌스키 대통령, 트럼프 대통령, 루터 나토 사무총장 간 합의에 기반해 도입됨
 - PURL은 기존 양자 차원의 무기 지원을 넘어 미국산 장비 중심의 다자간 구조적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됨
- 우, EU 도로 기준 충족에 1,100억 유로 이상 소요 전망(8.4)
 - 유럽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, 우크라이나는 범유럽교통망(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, TEN-T) 기준에 따라 주요 도로망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음
 - * 범유럽교통망(Trans-European Transport Network) :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고속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 등 교통 인프라의 통합 네트워크를 의미하며, EU회원국 간 원활한 인적·물적 이동과 경제 통합 촉진을 목적으로 구축 추진
 - 기준에는 왕복 4차로(방향당 2차로), 차로당 최소 3.5m 폭, 중앙 분리대 설치, 이차 도로 진입 제한 등이 포함됨
 - 전체 TEN-T 네트워크(7,372km)의 개보수 예상 비용은 약 1,106억 유로로 추산됨
 - 해당 추정치는 교량, 터널, 입체교차로, 토지 보상, 환경조치 등은 포함하지 않음

□ 주요 프로젝트 동향

① 종합계획수립(마스터플랜,MP) 사업

① M10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

< 사업 개요 >

- (발주처) 해외건설협회, KIND, 태웅로직스
- (용역사) 삼일회계법인, 법무법인지평
- (용역비) 730백만원
- (용역기간) 2025.2.~2025.9(210일)
- (추진현황) '25. 2월 용역 계약 및 국내 착수보고
'25. 3월 현지 착수보고
'25. 6월 중간보고회 개최
'25. 9월 최종보고회 개최 예정

○ (주요동향)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, 사업주관 거래조건 협의 등

② 6대 선도 프로젝트(참고)

② 폴란드 투자개발형 및 타당성 조사사업

① 석화(PDH/PP) 플랜트 건설 운영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Grupa Azoty, Orlen, 현대엔지니어링, KIND
- (사 업 비) 1,840백만불
- (사업내용) 폴리프로필렌 연간 43만톤 생산
- (추진현황) '19. 4월 KIND 참여의향서 제출
'20. 10월 금융종결
'25. 11월 최종 PAC(Provisional Acceptance Certificate) 발급

○ (주요동향) 발주처 준공검사 완료, Conditional PAC 발급 협의 중

② 폴란드 우치 WTE 건설 운영 사업

< 사업 개요 >

- (사 업 주) 베올리아, KIND, 남부발전
- (사 업 비) USD 480백만
- (사업내용) 폐기물 연20만톤 처리, 전기 18.6MWe 및 열 57 MWt생산
- (추진현황) '25. 3월 베올리아측 한국사업주에 사업참여 제안
'25. 4월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선정위원회 승인 및 MOU체결
'25. 5월 Non-binding Offer 제출 완료(남부발전)
'25. 8월 사업참여 외부 자문용역 실사 완료
'26. 1분기 KIND 내부 투자심의위원회 예정

○ (주요동향) 사업참여를 위한 상세 사항 외부 자문용역 중

참고

6대 선도 프로젝트 진행현황

프로젝트명	주요내용	담당기관	추진현황 및 계획
키 이 우 교 통 마스터플랜	• (1단계) 키이우 지역 공간개발 및 재건 계획 수립, 우선사업 선정 및 pre-FS 등 * '23.12~'24.11 (수행 : 유신 컨소시엄) • (2단계) 교통모델 개발 및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기반 교통계획 수립 등 * '24.5~'24.11 (수행 :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)	KIND LH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'25.4월) • 후속사업(디지털교통플랫폼) 2027 국토교통 ODA 추진
우만 스마트 시 티 마스터플랜	• 우크라 중부도시 우만市에 대해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한 도시개발전략 수립(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솔루션 등) * '23.9~'24.4(수행 : 제일Eng, 수자원공사 등)	KIND	• 현지 최종보고회 개최 (키이우, 4월4주) • 국내기업 등 후속사업 추진 협의중
보 리 스 공 현 대 화 재	• 스마트공항시스템 및 항행안전 시스템 제공 등 현대화사업, 공항 확장·개발 (활주로 등) 사업 및 마스터플랜 수립 등	한국 공항공사	• 현대화(공항시스템 개선) :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PMC 선정 ('24.10월) • 공항MP : 2026 국토교통 ODA 추진중 • 확장FS : 국토부 지원 사업 용역사 선정 및 과업착수('24.12월)
부 차 시 하 수 처 리 시 설 재 건	• 키이우지역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 수립	환경산업 기술원	•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('25년 7월) * 환경부 F/S 지원사업
댐 재건 및 현 대 화 등	• 카호우카 댐, 이르핀강 댐 등 재건 기술지원 및 부대시설 설계 등 • 그 외 노후수력 댐 진단 및 현대화 사업 추진	수자원 공사	• '24년 기재부 KSP사업 선정(수자원시설 정책·기술자문), 용역 발주 예정('25.10월)
철 도 노 선 고 속 화 등	• 우 키이우~폴 바르샤바 구간(919km) 중 우크라 구간(580km) 철도노선 고속화 계획 수립 등 * 우크라는 철도 운영속도 향상(50→150km/h) 추진 중	철도공단 (* 운영 등 코레일 협업)	• '24년 외교부 ODA 선정,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예정('25년)